

KDC 6판의 개념 기반 주기 체계 구성*

Construction of Concept-Based Note Structure for KDC 6

박 헤 령 (Haeryung Park)**

이 승 민 (Seungmin Lee)***

< 목 차 >

I. 서론	IV. KDC 제6판 주기의 구조 구성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KDC 주기 현황 분석	

요약: 현재 한국십진분류법(KDC) 6판은 주기와 보조표를 통한 분류번호 합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주기 유형의 편중, 분석합성 주기의 미흡, 보조표와의 연계 부족 등 단면적인 주기 구조로 인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KDC 6판 주기의 구조적 한계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면적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표의 주요 주류를 대상으로 주기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단면적인 분류에 집중된 현행 주기 구조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DC의 주기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면적이고 계층적인 주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KDC의 분류체계가 변화하는 지식 체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한국십진분류법, 분석합성, 주기, 주기 구조

ABSTRACT: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6th edition currently adopts a synthetic number-built methods by using schedule and tables. But this methods faces with limitations in building various subjects because of due to the mono-dimensional structure with the bias of note types, insufficient analytical-synthetic notes, and lack of notes that using tables. This research pract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notes in KDC 6th edition and proposed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to improve the number-building methods. The note types were analyzed using 4 main classes in schedule,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ono-dimensional note structure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components of notes of the KDC were identified, and a multi-dimensional and hierarchical note structure was proposed. Through this 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KDC can establish a foundation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evolving knowledge system.

KEYWORDS: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alytical-synthetic, Note, Note Structure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phae617@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8월 25일 • 최초심사: 2024년 9월 4일 • 게재확정: 2024년 9월 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23-42,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3.202409.23>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가 새롭게 형성되고 서로 융합되면서 복합적인 주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지식 분류체계는 다양한 주제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 분류체계인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도 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DC 6판의 구조는 다양하게 진화하는 복합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KDC는 열거식과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어, 주기와 보조표를 통해 분류번호를 합성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KDC의 주기는 문헌의 세부적인 분류와 복합적인 주제 표현을 돕는 도구로, 효과적인 정보 조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KDC 6판의 주기는 단순 지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기의 근본적인 기능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KDC의 서문에서는 8개의 범주로 주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만, 각각의 주기 유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주기의 적용 방침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기 유형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복합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분류번호의 합성을 지원하는 주기의 적용이 부족하며, 본표와 보조표를 연계하여 분류번호 합성을 지시하는 주기의 적용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주기의 구조적 한계는 복합 주제의 체계적 분류와 분류번호 생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기의 유형별 세분과 주기 유형의 추가를 주장하였으나, 현재 KDC 6판에서는 주기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DC 주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주기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열거식 분류표와 분석합성식 분류표에서의 주기 유형과 특성을 확인하고, 이전 연구에서 제기된 KDC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표의 주요 주류를 대상으로 한 주기 분석을 통해 주기 유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황을 확인하고, 주기 기능별 유형 세분을 통해 KDC 주기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면적 주기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DC 6판의 주기에 사용된 개념을 기반으로 주기의 구조적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주기 체계를 다면적 구조로 재구성하여 복합적인 분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기의 의미와 기능

학문이 발전하고 정보 자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소장자료를 분류하는 정보

조직 활동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정보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주제를 분석하여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류표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분류표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열거식, 준열거식, 분석합성식 혹은 십진식, 비십진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지만(윤희윤, 2018), 일반적으로 분류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분류항목, 보조표, 주기, 색인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 가운데 주기는 분류표 내의 표목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보충 혹은 인용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창수, 2014).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분류체계 내에서 표목 아래에 기술되며,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 번호 합성 지시, 혹은 다른 주제와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Mitchell & Vizine-Goetz, 2009). 또한 분류항목 아래 간략한 문구를 통해 세목의 전개를 생략하여 분류표를 간략화하며,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분류자의 이해를 도와 분류작업에 있어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진우, 1990). 이외에도 주기는 분류표 내의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며, 분류번호가 배정되지 않은 주제의 확인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분류표가 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본표와 보조표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정해성, 2007).

이와 같이,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문헌분류표에서의 주기의 핵심 기능으로는 분류번호의 생성과 기호 합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정연경, 2008).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료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도록 보조하기 위한 설명이나 지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분류항목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지시자이자, 분류번호 합성을 지원하는 분류 도구이다. 따라서 현재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주제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고 기호의 분석합성을 지원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확한 분류번호의 생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열거식 분류표에서의 주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류표에서는 각 분류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기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정옥경, 2011).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 미국의회도서관 분류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CC) 등과 같은 열거식 분류표는 지식의 전 분야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제분야를 포괄하기가 어렵다. 이에 열거식 분류표는 보조표나 주기를 통해 분류번호를 합성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이창수, 2014).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분류항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분류번호의 합성을 지원하는 주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정옥경, 2010), 대부분의 열거식 분류표에서는 주기의 유형 및 적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분류표 내에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열거식 분류표인 DDC의 주기는 분류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 분류번호의 합성 방식을 지시하고 있으며, DDC 23판은 서문에서 주기의 유형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DDC에서는 주기가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주제 내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주기, 입석의 주제를 식별하는 주기, 다른 주제에서 찾을 수 있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본표와 보조표의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주기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주기를 구분하고 있으며(Dewey, 2011), 그 외에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주기도 존재한다(〈표 1〉 참조).

〈표 1〉 DDC 23판 서문 주기 유형

범주	유형	범주	유형
해당 류와 세목에 나타나는 사항을 정의 및 설명하는 주기	정의주	다른 항목에 나타나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타분류지시주
	범위주		보라 참조주
	전조합주		도보라 참조주
	구표목주	기타 범주	표준구분 첨가주
	별명주		세구분 첨가주
	분류지시주		내부보조표 첨가주
본표의 변경사항 및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주기	개정주		매뉴얼 참조주
	사용금지주		간략 매뉴얼주
	세분전개주*		우선순위주
	재배치주		배열주
	신설주*	임의규정주	
	사용불가주*	해당 항목에 분류되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포함주
사용금지주			

※ *는 2017년 이후 WebDewey에서 사용되는 주기를 의미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DDC는 주기를 크게 4가지 범주와 기타 범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하위에 총 25개의 세분된 주기 유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DDC는 웹 버전인 WebDewey를 통해 분류표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WebDewey 2.0을 통해 다양한 주기 유형을 추가하고 있다(Sarma, 2007). 2017년 이후에는 세분전개주, 신설주, 사용불가주 등 세 가지 주기 유형이 추가되어 분류번호 합성에 적용되고 있다.

DDC는 열거식 분류표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류체계이지만, 전조합주, 표준구분 첨가주, 세구분 첨가주 등 다양한 주기 유형의 활용을 통해 주제의 분석과 분류번호 합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DDC는 각 주기의 정의와 사용법, 예시 등 대부분의 주기의 명칭과 사용방법을 서문과 매뉴얼에서 상세히 제시하여 분류자가 보다 명확하게 주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분석합성식 분류표에서의 주기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지식의 전 분야를 나열하는 대신 주제 분야의 기본 류 및 이와 관련된 관계만을 분류표에 표시하고, 분류번호를 생성할 때 각 주제 및 관계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기본 류는 일반적으로 패싯(facet)으로 세분되어 있어, 복합 주제를 분류할 때 패싯을 통해 기호를 합성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합성식 분류표는 다면적인 복합 주제를 분류하기 용이하며(이창수, 2014), 패싯을 통해 분류번호를 합성하기 때문에 주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Colon Classification(CC)이나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UDC) 등과 같은 분석합성식 분류표에서의 주기는 분류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시만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석합성식 분류표인 CC는 Ranganathan이 개발한 분류체계로, 분류표의 설계와 구성에 패싯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패싯 구조를 바탕으로 분류번호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Ranganathan은 모든 주제는 5개의 기본 패싯 중 하나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류표의 설계와 구성에 Personality(P), Matter(M), Energy(E), Space(S), Time(T)의 5개 패싯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패싯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분류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CC의 기호는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와 숫자, 선행하는 값을 지닌 지시자, 일반 지시자 등 총 74가지가 있다(남태우, 1991). CC는 다양한 기호를 이용하여 분류번호를 합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의 추가 및 제거가 용이하며, 각 기호를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어 문헌의 주제를 모두 기호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분류번호를 생성할 때 수많은 기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분류번호가 복잡하고 길며, 그 활용 방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김용성, 1998). 또한 분류번호의 간결성과 단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분류번호의 합성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인다. 현재 CC 7판에서 적용하고 있는 패싯과 기호를 살펴보면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CC의 패싯 기호 유형

패싯	기호	의미 및 기능
개성(Personality)	,	분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동물학 분류의 동물 등
재료(Matter)	;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에너지(Energy)	:	어떻게 변화하고, 작용하고, 진화하는가
공간(Space)	.	어디에 있는가
시간(Time)	'	언제 일어나는가

〈표 3〉 CC의 기호 유형

기호	의미 및 기능
*	agglomeration and interpolation (집적 및 보간)
←	backward range (역방향 범위)
“	common isolates (공통구분 지시)
&	phase relation (위상 관계 지시)
-	spectator of kind 1 (1형 관객 지시)
=	spectator of kind 2 (2형 관객 지시)
+	and, addition (추가)
-->	forward range (정방향 범위)

4. KDC 6판의 주기

KDC는 여러 국제적인 분류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편찬한 우리나라 표준 십진식 분류표이다. 주류, 강목, 요목, 세목의 배열 등은 DDC와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NDC)를 참고하였으며, 기술과학의 강목 순서와 체계 및 요목의 구분 배열은 LCC 등을 참고하여 편찬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KDC는 열거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분석합성식의 방식도 반영하고 있다. KDC는 복합 주제의 분류 및 일관성 있는 분류를 지원하기 위해 조기표와 다양한 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주기와 관련해서는, KDC 6판 서문에 기술된 주기의 설명에서 주요 분류항목에 적용시킬 수 있는 8가지 범주의 주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1) 주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 내포된 개념의 범위를 표시하였다.
- (2) 분류항목에 관련된 주제와 접근된 주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분류기호를 갖는 주제에 대한 안내사항을 주기를 통해 표시하였다.
- (3) 분류표 전개에 정조(精粗)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세분(細分), 이른바 입석(立席: standing room)의 토픽에 대해서는 소주제까지 상세히 전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이를 주기에 열거하였다.
- (4) 고문헌의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서명을 주기에 예로써 든 것이 있다.
- (5) 필요한 곳에서는 역시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인명과 지명을 수록하였다.
- (6) 앞의 조기성에서 예시한 각종 조기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의 전개를 지시하고 예를 들었다.
- (7) 별법(別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분류항목 아래에는 도서관에 따라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주기로 설명하였다(5. 별법 참조).
- (8) 분류에서 참조가 필요한 항목에는 주기의 끝에 참조표시를 열거하였다.

KDC 6판의 주요 개정방침에 따르면, “다양한 주기유형을 도입하고 분류항목에 주기를 적극 제시하되, 주기 기술방식을 일원화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3)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열거식 분류표와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KDC에서는 8개 범주의 주기 유형으로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번호합성 지시가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주기 유형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분류자가 실제로 주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분류번호를 생성해야 하는지, 각각의 주기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KDC 편찬위원회에서도 주기의 개선을 도모해 왔지만, 현재 KDC 6판에서는 이들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KDC 주기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다. KDC는 주기의 유형 구분 없이 크게 8가지 범주로 주기를 구별하고 있어 명확한 주기 형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분류를 지원하는 주기의 유형도 매우 부족하다(정연경, 2008). 이로 인해 KDC 6판의 주기는 본표 내 표목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정옥경, 2011).

둘째, 본표와 조기표의 연계 지시가 부족하다. KDC는 본표에 조기표를 적용하여 분류하라는 지시가 모호하여 분류항목이 독립적으로 세분 전개되고 있으며(정해성, 2005), 분류에 대한 지시가 본표에 제시되지 않고 별도의 매뉴얼로 마련되어 있어 분류작업에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기표 적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주기와 지시사항의 마련으로 일관된 분류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연경, 2000).

셋째, 주기 적용 방침이 일관적이지 않다. KDC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주기가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정옥경, 2010). 또한 다양한 주기 유형의 의미와 기능, 그 적용방법이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지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정옥경, 2011). 특히 기호 합성을 설명하는 주기의 지침과 적용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번호 생성의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다(정해성, 2007).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KDC 주기는 열거식 분류법과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 지시 중심의 주기 구성 및 적용의 한계로 인해 분류번호의 분석합성 방침이 미흡하며, 단면적 분류 지원만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KDC 주기의 구조는 분류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KDC를 이용한 분류작업의 정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주기를 단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주기, 항목, 해설이 상호 연결된 다면적인 구조로 주기의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KDC의 서문에서 제시한 주기의 범주 이외에, KDC 본표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주기의 유형과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300 사회과학(이승민, 2000)만을 대상으로 주기의 유형을 분석하거나,

KDC 주기의 문제를 서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정연경, 2000; 정옥경, 2011; 정해성, 2007)이 일부 수행되었으나, 실제 본표를 대상으로 주기를 분석한 연구 혹은 KDC의 주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하게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DC 6판의 본표 중 주기의 적용 비율이 높고, 분류합성의 비중이 높은 300, 400, 500, 900의 4개 주류를 대상으로 본표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기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KDC 주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주기 구조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KDC 주기 현황 분석

1. 주류별 주기 유형 분석

KDC 6판 주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DC 6판의 본표에 사용되고 있는 주기의 수 및 유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주류 선정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는 주기의 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주기 적용의 다양성 등 각 주류별 주기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KDC 6판 본표에 사용된 주기를 분석한 결과,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900 역사 등 총 4개 주류에서 가장 많은 주기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기의 유형 또한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들 주류는 KDC 본표에 적용되고 있는 전체 주기의 70.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표 전체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300은 학문 분야의 특성상 보조표의 사용이 중요한 주류이며, 400은 타 분야와의 연계가 많은 주류이다. 500은 분류 표목과 주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900은 보조표가 강목에 다수 사용되어 보조표를 사용하는 주기의 적용 빈도가 높은 주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0, 400, 500, 900의 4개 주류를 대상으로 KDC 6판의 주기 유형을 분석하였다.

〈표 4〉 KDC 6판 본표 주류별 주기 수 및 비율

주류	합계	비율(%)	주류	합계	비율(%)
000	515	5.71	500	2,372	26.32
100	478	5.30	600	678	7.52
200	605	6.71	700	254	2.82
300	1,985	22.02	800	154	1.71
400	1,242	13.78	900	730	8.10
			합계	9,013	100

2. 주기 유형 분석

KDC 6판에서는 서문에서 주기의 유형과 사용 지침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문의 주지침과 실제 본표에서 사용되는 주기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KDC의 서문에서 제시된 주기의 유형과 본표에서 실제로 사용된 주기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4개 주류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 주기 유형을 분석하였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서문에서는 주기의 유형 구분 없이 주기 범주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본표에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KDC 6판 본표 실사용 주기 유형

범주	유형	주기에 사용된 어휘	
해당 류와 세목에 나타나는 사항을 정의 및 설명하는 주기	정의주	~을/를 말한다	
		~을/를 의미한다	
		~것	
		(연도 표기 및 표목에 대한 정의)	
	범위주	~만을 포함한다	
별명주	~라고도/고도 한다		
예시주	예:		
해당 항목에 분류되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포함주	~을/를 포함한다	
	분류지시주	여기에 분류한다/된다	
항목의 세분을 지시하는 주기	세분주	~와 같이 세분한다/된다	
		~와 같이 구분한다/된다	
	전주제구분주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한다	
		100-990과 같이 주제구분(강목 이상)한다	
	보조표 사용주	표준구분표	표준구분한다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표준구분 -00을 조합하여 각 주제에 구분한다
		국어구분표	국어구분의 기호를 사용하여 부가한다
		지역구분표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문학형식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언어공통구분표	~와 같이 언어구분한다		
배열주	~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패킷지시자	0n을 부가한 후/부가하여 사용한다		
	기호를 부가하여 세분한다		
다른 항목에 나타나는 사항을 지시하는 주기	타분류지시주	해당 주제 아래에 분류한다/된다	
		~와 함께 분류한다/된다	
		(타분류번호)에 분류한다	
참조주	→		

범주	유형	주기에 사용된 어휘
본표의 변경사항 및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주기	구표목주	[전 (표목)]
		[(표목)]
	재배치주	([분류번호]인 경우) ~에 분류한다
	예비표목주	((분류번호)인 경우) ~에 분류한다
	별법주	별법 :
		별법으로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
	양자택일주	(도서관에 따라) ~할 수 있다
	금지주	~과 병용하지 않는다
각주	*	
타분류법 사용주	분류는 ~에 의한다	

〈표 6〉 KDC 6판 서문과 본표의 주기 유형 비교

서문에서 제시하는 주기 유형	본표의 실제 주기 유형
(1) 주요 분류항목에 대한 정의와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 내포된 개념의 범위를 표시하였다.	정의주
	범위주
	별명주
(2) 분류항목에 관련된 주제와 접근된 주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분류기호를 갖는 주제에 대한 안내사항을 주기를 통해 표시하였다.	분류지시주
	세분주
	전주제구분주
	타분류지시주
(3) 분류표 전개에 정조(精粗)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세분(細分), 이른바 입석(立席: standing room)00의 토픽에 대해서는 소주제까지 상세히 전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이를 주기에 열거하였다.	포함주
(4) 고문헌의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서명을 주기에 예로써 든 것이 있다.	예시주
(5) 필요한 곳에서는 역시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인명과 지명을 수록하였다.	정의주
(6) 앞의 조기성에서 예시한 각종 조기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의 전개를 지시하고 예를 들었다.	보조표사용주
(7) 별법(別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분류항목 아래에는 도서관에 따라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주기로 설명하였다(5. 별법 참조).	별법주
	양자택일주
(8) 분류에서 참조가 필요한 항목에는 주기의 끝에 참조표시를 열거하였다.	참조주

〈표 5〉 및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KDC 6판의 서문에서는 실제적인 주기에 대한 설명이나 지침이 아닌 주기의 유형 범주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표에서는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주기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문에서 제시한 주기 유형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기가 상당 수 나타나고 있으며, 배열주, 패짓지시자, 구표목주, 재배치주, 예비표목주, 금지주, 각주, 타분류법 사용주 등이 이의 대표적인 주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3. 주기 실사용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5> 및 <표 6>에서의 주기 유형 세분화를 기반으로, 각 주류별로 사용된 주기 유형의 실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300, 400, 500, 900의 4개 주류에 나타난 주기 유형의 실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300, 400, 500, 900 주류별 주기 사용 빈도 분석

	300	비율(%)	400	비율(%)	500	비율(%)	900	비율(%)
정의주	5	0.25	1	0.08	4	0.17	208	28.49
범위주	1	0.05	0	0.00	1	0.04	2	0.27
별명주	0	0.00	0	0.00	1	0.04	0	0.00
분류지시주	34	1.71	20	1.61	59	2.49	31	4.25
타분류지시주	37	1.86	38	3.06	38	1.60	23	3.15
세분주	35	1.76	32	2.58	77	3.25	4	0.55
전주제구분주	7	0.35	0	0.00	1	0.04	1	0.14
보조표 사용주	90	4.53	41	3.30	41	1.73	48	6.58
포함주	753	37.93	649	52.25	1,065	44.90	185	25.34
예시주	177	8.92	102	8.21	145	6.11	47	6.44
구표목주	180	9.07	35	2.82	276	11.64	60	8.22
재배치주	79	3.98	9	0.72	91	3.84	16	2.19
참조주	558	28.11	314	25.28	551	23.23	87	11.92
타분류법 사용주	0	0.00	1	0.08	0	0.00	0	0.00
별법주	24	1.21	0	0.00	20	0.84	3	0.41
배열주	0	0.00	0	0.00	0	0.00	1	0.14
양자택일주	1	0.05	0	0.00	0	0.00	1	0.14
각주	0	0.00	0	0.00	2	0.08	11	1.51
금지주	0	0.00	0	0.00	0	0.00	2	0.27
패킷지시자	4	0.20	0	0.00	0	0.00	0	0.00
합계	1,985	100	1,242	100	2,372	100	730	100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주류에서는 포함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 참조주, 예시주 등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기는 분산되어 있는 주제를 해당되는 분류항목으로 안내 혹은 지시하는 주기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패킷지시, 주제구분 등 분류번호 합성이나 분석을 지시하는 주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KDC의 주류에 사용된 주기의 유형은 포함주와 참조주에 그 활용이 편중되어 있으며, 단순 지시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900의 경우 포함주(25.34%)와 참조주(11.92%)가 900에 사용된 전체 주기의 37.26%를 차지하며, 정의주가 28.49%의 비율로 사용되어 900에 사용된 총 주기의 65.75%가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주기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범위주, 양자택일주(300), 정의주, 타분류법 사용주(400), 범위주, 별명주, 전주제구분주(500), 전주제구분주, 배열주, 양자택일주(900)는 각 주류에서 한 번씩만 사용되었으며, 전주제구분주, 별명주, 배열주, 양자택일주, 각주, 패싯지시자 등 분류합성과 관련된 주기는 대부분의 주류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KDC 6판의 주기는 포함주, 참조주와 같은 단순 지시 기능에 편중되어 있으며, 분류합성이나 주제 분석과 관련된 주기는 충분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주제 분야가 포함주를 통해서 지시되고 있으며, 포함주 안에 정의주, 포함주, 범위주의 기능이 혼용되는 등 여러 주기 유형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시적 주기로의 편중은 KDC의 주기가 단면적인 분류 지원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고 있으며, 복합 주제의 분석이나 분류번호 합성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본표에서 실제 사용되는 20여 개의 주기 유형에 대한 설명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분류작업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KDC의 대부분의 주기는 단순 지시 기능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분류번호 합성을 지시하는 주기의 부족은 복합 주제의 분류에 있어 비일관적인 주제분석과 분류번호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기 유형의 편중과 주기 다양성의 부족은 각 주류별 특성과 각 보조표의 적용 방침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분류 과정, 특히 복합 주제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다면적인 주제 분석이 아닌 단면적인 분류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기 적용의 다면적 구조화를 통해 분류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KDC 제6판 주기의 구조 구성

1. 다면적 구성을 위한 주기 체계 구성

KDC 6판의 개정방침에는 “다양한 주기유형을 도입하고 분류항목에 주기를 적극 제시하되, 주기 기술방식을 일원화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3)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DC 6판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기는 단순 지시 주기로 그 유형이 편중되어 있으며, 분석합성을 위한 주기가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서문에서 8개의 주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본표에서는 20개의 주기 유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의미의 주기가 상이한 방식으로 표시되어 분류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는 주기 유형의 추가가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주기 유형의 추가보다는 분류 도구로서의 주기의 근본적인 기능 확장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주기를 분류항목에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기가 상호 연계되어

주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차원 구조로 체계화하여 다면적 주기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기 구조의 구성을 통해 단면적 지시 주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 사이의 개념적 연계가 가능한 다면적인 구조로 주제 분석 및 합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KDC 서문에서 제시한 주기 범주는 KDC에서 사용하는 주기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8개 주기 범주를 KDC 주기의 기본적인 구조로 유지하면서, 이들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주기를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구조를 구성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KDC 주기 사이의 개념적 체계를 형성하고, 각각의 주기와 분류항목 사이의 연계, 주기와 주기 사이의 연계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분류 보조도구로서의 주기의 역할, 분류번호 합성이라는 주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기 구성요소 도출

KDC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기의 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기의 구성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주기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추출하고, 추출한 개념을 기반으로 주기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주기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KDC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기의 구성요소를 KDC 서문의 주기 범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 의미적 범위 설정 요소

의미적 범위 설정 요소는 특정 개념이나 항목의 의미적 한계를 정하는 요소로, 정보 자원에 수록된 주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그 의미에 기반을 두어 분류항목을 연계시키는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의미적 범위 설정을 지시하는 주기로 범위주, 포함주 등을 들 수 있다.

나. 정의를 내리는 개념 요소

정의를 내리는 개념 요소는 기존의 정의주와 같이 분류항목의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것 이외에, 각 분류항목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명시해 주는 요소이다. 이 요소를 통해서 본표 내 분류항목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근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관련된 다른 분류항목과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의주, 별명주 등이 이 요소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주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구분을 지시하는 요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는 분류항목과 분류번호를 분리하거나, 분류항목과 주기를 구별하는 것으로, 구분을 통해 분류번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타분류지시주, 분류

지시주, 참조주 등에 사용된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라. 번호합성 요소

번호합성 요소는 분류번호를 생성하고 분류번호 합성을 지원하는 요소이다. 분류번호 합성에는 분류번호, 보조표, 각주, 열거순서 등이 적용되는데, 이들 분류 도구들에 대한 안내를 지시하는 타분류지시주, 보조표사용주 등에서 번호합성 요소들이 나타난다.

마. 패싯지시자 요소

패싯지시자 요소는 분류번호 합성을 위한 규칙 혹은 원칙을 지시하는 요소로, 이는 본표 내의 주체가 지닌 각각의 측면을 구분하고 지시하는 특정 패싯으로 표시될 수 있다. 0을 추가하거나 특정 기호를 부가하는 등 패싯지시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KDC 서문에서 제시한 주기 범주를 기반으로 본표에서 실제 사용되는 주기의 구성요소들을 각 주기가 지니고 있는 개념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주기의 개념에 따른 재구성이 주기의 근본적 기능을 확장하고 다면적인 분류합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기의 개념이 아닌 주기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구성이 필요하다.

3. 다면적 구조를 위한 요소 체계 구성

앞서 도출한 주기 구성요소들은 현재 각각이 독립적인 주기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각 주기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다면적 구조를 통해 분류표 전체에서 본표, 보조표 등 분류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주기의 개념적 연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기 기능의 개념적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 체계를 통해서 주기 구성요소의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주기의 개념을 기반으로 주기의 기능을 구분하면 주기 구성요소들은 내부 요소(internal note component)와 외부 요소(external note component), 그리고 연계 요소(linking note components)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 요소는 주기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요소로, 여러 분류항목 혹은 분류 도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지시 중심적인 주기의 요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주기에서 분류를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 및 분류항목에 대한 의미적 범위 설정, 정의, 구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내부적 요소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연계 요소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322.081 국제경제관계' 분류항목에 포함되는 주제인 정책, 회의, 기구와 같이 분류항목에 대한 의미적 범위를 설정하는 내부적 요소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연계 요소를 통해 국제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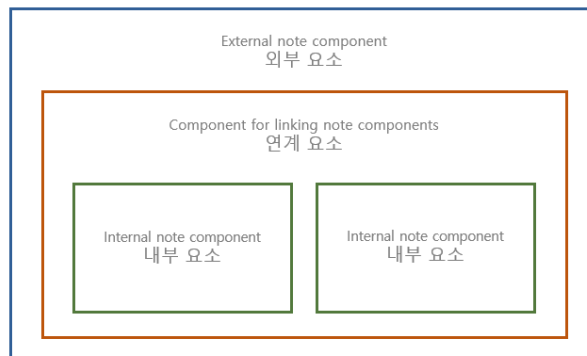
리는 내부적 요소에 표현되는 것이 주제분석이나 다른 분류항목과의 연계 등에 있어 필요하다.

외부적 요소는 주기 자체의 지시적 기능이 아니라, 주기를 통해서 본표, 보조표, 해설서, 패킷 등 주기 이외의 분류표 구성요소와의 합성을 지시하는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외부적 요소가 주기로서 분류합성을 안내하고 지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외부적 요소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내부적 요소와 연계 요소를 포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조표를 활용하여 분류번호를 생성할 것을 지시하는 분류항목의 주기는 외부 요소인 보조표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분류항목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내부 요소를 연계 요소를 통해 연결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연계 요소는 분리되어 있는 각 요소들을 연결하여 기능적 상호 연계를 지원하며, 내·외부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연계 요소는 내부 요소들과 단독으로 사용되어 내부적 요소 간의 상호 연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내부 요소를 포괄하여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 간의 상호 연계도 지원할 수 있다. 내부 요소는 주기가 분류항목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외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외부 요소 또한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내부 요소가 될 수 있다.

4. 다면적 구조 구성

주기의 기능을 기반으로 주기의 구성요소를 내부, 외부, 연계 요소로 구분한 체계를 도식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KDC 주기 요소 구조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부 요소는 전체 구조 중 가장 안쪽에 나타나며, 연계 요소를 통해 표현된다. 주기가 지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내부 요소는 하나만 사용될 수도 있고, 다수의 내부 요소와 연계 요소와의 집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연계 요소는 내부 요소와의 사이에,

그리고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로서 작용하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외부 요소는 전체 구조 중 다른 모든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외부 요소는 내부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연계 요소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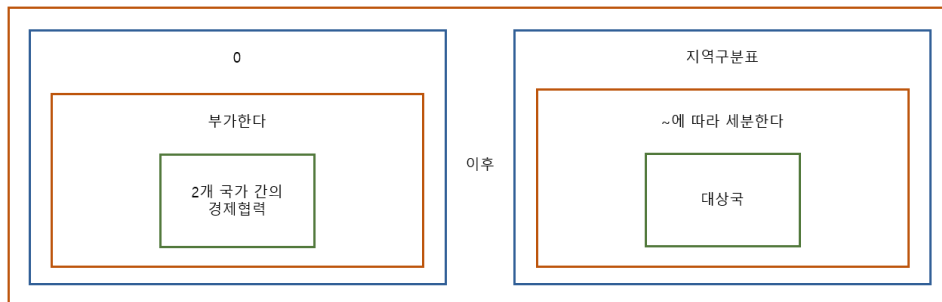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주기 구성요소들을 체계화하면, 기존 KDC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지시 중심의 단순한 주기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내부적 요소로 유지하면서, 번호 합성을 위한 주기로까지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기존의 주기는 별다른 구조 없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분류항목과 주기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주기 요소 구조를 통해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를 연계 요소를 통해 표현, 연계하면 다면적인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주기와 같이 분류항목과 주기 간의 일대일 연결이 아닌, 분류항목과 주기, 주기와 주기, 분류항목과 분류항목들 간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주기의 구성요소를 내부적, 외부적 요소로 구분하고 연계 요소를 통해 관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KDC 주기의 범주에 합성을 위한 주기를 추가하지 않고 이미 마련된 요소들을 조합하여 구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주제 측면을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KDC 주기 요소 구조를 실제 주기에 적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900 역사' 분류항목에 주기는 "세계사, 세계문화사 → 909"와 같이 참조주를 사용해 유사한 주제는 다른 분류번호를 참조하라 지시하고 있다. 이때 '세계사', '세계문화사'와 같이 대상 분류항목에 대한 의미적 구분이 내부 요소로 적용되며, '909'는 해당 분류항목의 분류번호 이외의 분류번호로, 외부 요소로 적용된다. '→(화살표)'로 표기되는 기호는 해당 주제는 다음 분류번호를 참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며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를 연결하는 연계 요소로 적용된다. 이는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가 연계 요소를 통해 연계되는 주기 요소 구조에 대한 예시이다.

내부 요소와 연계 요소의 조합만으로도 주기의 구조가 구성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598.123 3세-5세 아동' 분류항목에는 해당 분류항목의 의미를 설명하는 정의주 "취학 이전의 아동을 의미한다"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내부 요소는 '취학 이전의 아동'이 되며, '~을 의미한다'가 연계 요소로써 내부 요소와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처럼 분류항목의 세분을 지시하는 주기가 아닌 분류항목 자체에 대한 설명의 경우 내부 요소와 연계 요소만으로도 주기 구조가 구성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KDC 주기 요소 구조를 적용하여 두 개 이상의 주기 유형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322.83 경제협력, 경제원조' 분류항목의 주기는 패싯지시자와 보조표사용주 유형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2개 국가 간의 경제협력은 0을 부가한 후 대상국을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로 표기되는 주기에서 내부 요소는 분류할 대상을 의미하는 '2개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되며, 패싯지시자 '0'은 외부 요소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을 부가한 후'는 '부가한다', '이후'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연계 요소이다. 이 중 '부가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는 분류할 대상인 내부 요소와 패싯으로 표현되는 외부 요소를 연결한다. '대상국'은 내부 요소로, '지역구분

표'는 외부 요소로 작용하며, 이 두 요소의 분류 지시 관계를 나타내는 '~에 따라 세분한다' 연계 요소에 의해 연결된다.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의 집합은 '이후'를 통해 연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의 집합체는 하나의 내부 요소로써 연계 요소를 통해 연결된다. 이를 <그림 1> 구조를 적용해 도식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KDC 주기 요소 구조 예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KDC 주기 요소 구조는 기존의 KDC 주기의 단순 열거식 구조에서 벗어나 주기 요소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다차원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분류항목에 대한 단순한 설명의 경우 내부 요소와 연계 요소의 조합을 통해 관계가 표현되기도 하며, 내부 요소와 내부 요소와의 연계도 지원한다.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와의 관계를 연계 요소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분류항목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며, 두 개 이상의 주기 유형을 다면적으로 연결하여 분류번호의 합성을 효율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더욱 직관적이고 상세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급속한 학문적 발전과 방대한 정보 자원의 축적은 정보조직 활동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KDC는 더욱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류체계 생성을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류항목에 대한 지시 사항을 통해 분류작업을 돕는 도구인 주기 또한 판을 거듭하며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KDC 6판의 주기는 분류번호를 합성하고 복합 주제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KDC 6판 주기의 실제적인 한계 분석을 위해 300, 400, 500, 900의 4개 주류를 기준으로 주기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8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는 주기 유형을 주기의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4개 주류에 실제로 사용된 주기 유형별 적용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DC의 주기 유형은 단순 지시 중심의 주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분석합성을 위한 주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KDC 주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DC 6판의 주기의 근본적인 기능 확장을 위한 다면적 구조로 주기 체계를 구성하였다. KDC 6판의 주기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점들을 주요 주류에 사용된 주기 유형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주기가 지니고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주기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주기 구성요소의 의미적 연계를 위해 주기 기능의 개념적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기를 통한 의미적 연계와 분류번호의 분석합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면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기의 다면적 구조는 주기의 개념에서 기인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의 서문에서 제시된 8개의 주기 범주와의 연계를 위해 각 유형의 주기가 지니고 있는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기 구성요소를 5개로 도출하였다. 주기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의미적 범위 설정 요소, 정의를 내리는 개념 요소, 구분을 지시하는 요소, 번호합성 요소, 패싯지시자 요소로 주기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면적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주기 구성요소의 기능을 내부 요소, 외부 요소, 연계 요소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다면적 구조는 단순히 개별 주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주기 요소들 간의 의미적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다면적 주기 구조는 분류번호 합성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KDC 6판에서는 새로운 하위 개념이 나타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분류번호를 직접 추가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분류번호를 합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면적 주기 구조를 도입하면, 새로운 개념을 위한 고유한 분류항목을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 분류번호들을 보다 유연하게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헌이 다루는 다양한 주제를 하나의 구조화된 번호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복합 주제일지라도 각 패싯의 의미적 연계를 통해 적절한 분류체계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기의 새로운 구조는 분류항목 간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여, 복합적인 주제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면적 구조는 기존의 단순 지시적 기능을 넘어서, 주기의 개념적 기능을 확장하여 더 복합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면적 주기 구조는 향후 KDC에 적용될 경우 기존의 제한된 주기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합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호 의미적 연계가 가능한 다차원적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KDC 6판의 4개 주류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KDC 6판 본표 전체에 걸쳐 사용된 주기 유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기의 다면적 구조의 구성만을 제안하였으나, 구성한 다면적 주기 구조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용성 (1998). 콜론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의 비교분석을 위한 시론. 인문과학연구논총, 18, 323-345.
- 김진우 (1990). 分類表에 設定된 分類註記의 諸類型. 도서관, 45(4), 39.
- 남태우 (1991). Colon 분류법 7판(1987)에 대한 비평적 소개. 圖協會報, 32(3), 23-29.
- 윤희윤 (2018). 정보자료분류론 (개정증보 제5판). 대구: 태일사.
- 이승민 (2000). KDC에서의 주기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창수 (2014). 자료분류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연경 (2000). DDC 21과 KDC 4의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181-205.
- 정연경 (2008).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에 나타난 주기의 다양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129-1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08.19.2.129>
- 정옥경 (2010). KDC 예술류(600) 분류항목전개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3), 109-1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3.109>
- 정옥경 (2011). KDC 제5판의 주기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07-22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3.207>
- 정해성 (2005). KDC의 조합식 분류체계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133-153.
- 정해성 (2007).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개정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529-546. <https://doi.org/10.16981/KLISS.38.4.200712.529>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 Mitchell, J. S. & Vizine-Goetz, D. (200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th ed.). Fla.: CRC Press.
- Sarma, G. K. (2007). WebDewey: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in the Web. 5th Convention PLANNER-2007, Gauhati University.
- Satija, M. P. (2002). A Manual of Practical Colon Classification, (4th Revised ed.). Concept Publishing Company, New Delhi.
- The Indira Gandhi National Open University (IGNOU) (2017). Unit-13 Colon Classification (CC). Block-4 Study of Selected Schemes of Classification of Library Classification.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Ok-Kyung (2010). A study on the changes of expansion of classification number of the arts in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3), 109-1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0.21.3.109>
- Chung, Ok-Kyung (2011). A study on the notes analysis of KDC (5th e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07-22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3.207>
- Chung, Yeon-Kyoung (2000). A comparative study on DDC 21 and KDC 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181-205.
- Chung, Yeon-Kyoung (2008). A comparative study of notes in KDC and D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129-1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08.19.2.129>
- Jung, Hae-Sung (2005). Analysis of faceted scheme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4), 133-153.
- Jung, Hae-Sung (2007). Some suggestion on the 5th revise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529-546. <https://doi.org/10.16981/KLISS.38.4.200712.529>
- Kim, Jin-Woo (1990). Subtypes of classification notes set in the classification table. *Library*, 45(4), 39.
- Kim, Yong-Seong (1998).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lon classification and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18, 323-34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Changsoo (2014). *Library Classifica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Seung-Min (2000). Study on the Analysis of Note Types in KDC.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Nam, Taewoo (1991).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7th edition (1987) of the Colon Classification. *KLA Bulletin*, 32(3), 23-29.
- Yoon, Hee-Yoon (2018). *Library Classification. (5th Revised ed.)*. Daegu: Taelisa.